

5  
단  
3  
단  
3  
단  
3  
단  
3  
단  
3

<b>CHAPTER 1</b>	공부 시간	수능까지 남은 시간, 당신은 몇 시간입니까?
<b>CHAPTER 2</b>	개념 점검	내가 알고 있는 개념, 정말 문제에 쓸 수 있는 상태인가?
<b>CHAPTER 3</b>	문풀 기준 세우기	문풀 기준 확립 감으로 풀기 vs 기준으로 확장해서 풀기
<b>CHAPTER 4</b>	오답 필연성 분석	틀린 문제를 풀 때, 왜 그렇게 푸는지 알고 풀고 있습니까?
<b>CHAPTER 5</b>	공부시간 배분	개념 기출 EBS N제 실모 파이널 공부시간 나만의 황금배분 찾기

**CHAPTER**  
**1**

공부  
시간

수능까지 남은 시간,  
당신은 몇 시간입니까?

**내 평소 공부시간 알아보기**

수능 디데이 D- \_\_\_\_\_ 수능까지 \_\_\_\_\_주 남음 \*제외-중간2주, 기말2주, 세특/창체1주  
지난주 공부시간 적어보기 (\*학교수업X 순공시간O 수능 공부시간 만 적기)

주말

요일	월요일	화요일	수요일	목요일	금요일	토요일	일요일
수능공부 시간							
수능수학 공부시간							

**남은 수능 공부 시간 계산하기**

1. 이번 주 공부시간 x (수능까지 남은주 -3주) : \_\_\_\_\_시간

ex. 이번 주 공부시간 (35시간) x (34주-3주) : 1085시간

2. 주말 평균 공부시간 x 3주 : \_\_\_\_\_시간 (여름방학 예상 순공시간)

ex. 주말 평균 공부시간 (8시간) x (3주=21일) : 168시간

3. 수능까지 남은 공부시간 : \_\_\_\_\_시간

ex. 1번시간 +2번시간 = 1253 시간

4. 과목별 공부 비율 배분 : 국어\_\_\_\_% 수학 \_\_\_\_% 영어\_\_\_\_% 탐1\_\_\_\_% 탐2\_\_\_\_%

ex. 국어 25% 수학 25% 영어 20% 탐구1 15% 탐구2 15%

5. 남은 수능수학 투자 시간 : \_\_\_\_\_시간 (\*3번에 4번 비율을 곱한 값)

ex. 1253시간 \* 0.25 = 313.25 (약 313시간)

고3은 3월 말부터 수능까지 수능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평균 300시간 입니다.

수 I , 수 II, 선택 x 개념, 기출, EBS, N제, 모의고사, 파이널까지 ....

“이 시간 안에 못 바꾸면 수능 점수는 3모 그대로입니다.”

CHAPTER  
2

개념  
점검

내가 알고 있는 개념,  
정말 문제에 쓸 수 있는 상태인가?

나의 개념상태 진단하기 내 상태에 맞는 질문에 체크해 보세요~!

- 쉬운 문제는 풀리는데 조금만 변형되면 막힌다.
- 문제를 보면 “아 이 유형이네” 부터 떠오른다.
- 공식을 외웠지만, 개념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.
- 누가 “왜 그렇게 풀었어?”라고 물으면 말이 막힌다.
- 개념 따로, 문제 따로, 문제에 개념이 연결되지 않는다.
- 문제 풀다가 “이거 개념 뭐였지? 하고 다시 찾는다.
- 4점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막힌다.
- 어려운 문제는 내가 ‘발상이 부족해서’라고 생각한다.
- 개념은 문제만 많이 풀다보면 늘 거라고 믿는다.
-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.

5개 이상 해당 된다면,

나는 지금 개념을 ‘아는 상태’가 아닙니다.

그래서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실력이 안 오르는 겁니다.

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‘개념을 몰라서’가 아니라 ‘개념을 쓸 줄 몰라서’ 입니다.

공식을 외운 상태에서는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막힙니다.

그래서 개념은 “정리”하는 게 아니라 “유도과정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” 합니다.

유도과정을 알아야 문제가 바뀌어도 다시 만들어서 풀 수 있으니까요.

3개월만에 5수생 5→1등급 “수학의 단권화”  
혼자 하다가 시간 날릴 바에  
이미 검증된 구조를 쓰는 게 빠릅니다

 단권화 공부법



CHAPTER  
3

문풀  
기준

문풀 기준 확립  
감으로 풀기 vs 기준으로 확장해서 풀기

Q. 문제 풀고 나면, 남는 게 있습니까?  
남는 게 없으면, 그 문제는 풀 게 아닙니다.

문제를 감으로 풀 때 나타나는 증상

- 같은 유형인데 조금만 바뀌면 막힌다
- 문제를 풀 때 기준 없이 일단 떠오르는 대로 풀어본다
- 틀린 문제를 다시 보면 또 틀린다
- 문제를 풀어도 '실력이 쌓인다' 는 확신이 없다
- 내 풀이의 일관성이 없다
- 이 문제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
- 해설 보고 '아 이거였네' 하고 그냥 넘어간다
-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면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난다

나만의 문풀 기준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

- 이 문제와 연결된 실전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
- 문제가 달라져도 기준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
- 문제를 보면 접근 기준이 먼저 떠오른다
- 문제를 풀 수록 '실력이 쌓인다' 는 확신이 생긴다
- 내 풀이는 일관성이 있다
- 문제를 풀고 나면, 대표 기준과 연결이 되면서 확장할 수 있다
- 시간이 지나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풀 수 있다

기준 없이 문제 풀면, 시간만 낭비 하는 겁니다.  
대표 기출 기준이 있어야  
문제를 풀수록 실력이 쌓입니다

 문풀 공부법



CHAPTER  
4

필연성  
분석

틀린 문제를 풀 때,  
왜 그렇게 푸는지 알고 풀고 있습니까?

일반적인 오답방법

□ 문제 풀고 → 답 맞추고 → 아 맞다!

김지석의 필연성 분석 오답

문 제
<p><math>0 \leq x \leq 1</math>에서 정의된 함수 <math>f</math>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(가) <math>x_1 &lt; x_2</math>이면 <math>f(x_1) \leq f(x_2)</math></p> <p>(나) <math>f\left(\frac{x}{4}\right) = \frac{f(x)}{2}</math></p> <p>(다) <math>f(1-x) = 1 - f(x)</math></p> </div> <p>이 때, <math>\frac{1}{16} &lt; \frac{2}{19} &lt; \frac{3}{16}</math>를 이용하여 <math>f\left(\frac{2}{19}\right)</math>의 값을 구하시오.</p>

일반적인 수업 (해설)
<p>(가): <math>f\left(\frac{1}{16}\right) \leq f\left(\frac{2}{19}\right) \leq f\left(\frac{3}{16}\right)</math></p> <p>(나): <math>f\left(\frac{1}{16}\right) = \frac{1}{2}f\left(\frac{1}{4}\right) = \frac{1}{2} \cdot \frac{1}{2}f(1)</math></p> <p><math>f\left(\frac{3}{16}\right) = \frac{1}{2}f\left(\frac{3}{4}\right) = \frac{1}{2}f\left(1 - \frac{1}{4}\right)</math></p> <p><math>= \frac{1}{2}\left\{1 - f\left(\frac{1}{4}\right)\right\} = \frac{1}{2}\left\{1 - \frac{1}{2}f(1)\right\}</math></p> <p>(다) <math>f(1) = 1 - f(0)</math></p> <p>(나) <math>f\left(\frac{0}{4}\right) = \frac{1}{2}f(0) \rightarrow f(0) = 0</math></p> <p><math>f(1) = 1 - f(0) = 1 - 0 = 1</math></p>

수학적 필연성 필기
<p><math>f\left(\frac{2}{19}\right)</math>를 구해야 한다.</p> <p>→ <math>\frac{2}{19}</math>에 대한 부등식 조건이 나와 있다.</p> <p>→ <math>f\left(\frac{2}{19}\right)</math>의 값을 부등식으로 추정해서 알아내란 얘기다.</p> <p>→ 조건(가)가 부등식이다.</p> <p>→ <math>f\left(\frac{2}{19}\right)</math>의 값을 추정하려면 <math>f\left(\frac{1}{16}\right), f\left(\frac{3}{16}\right)</math>의 값을 알아야 한다.</p>

1.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?
2. 구하라고 하는 것과 조건과 어떤 연관이 있지?
3.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유도과정은 어떤 것이 있지?
4. 내가 공부한 대표 기출과 어떤 관련이 있지?

틀린 문제를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 
나의 사고를 고쳐보세요.  
처음보는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 
나의 '힘'이 되어줄 겁니다.

 필연성 분석법



**CHAPTER  
5**

**공부시간  
배분**

**개념 기출 EBS N제 실모 파이널  
공부시간, 나만의 황금배분 찾기**

**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, 시간 쓰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.**

**수학1**

-----%

**개념**

-----시간

**기출**

-----시간

**실전개념**

-----시간

**EBS**

-----시간

**N제**

-----시간

**남은  
수능수학  
시간**

**수학2**

-----%

**개념**

-----시간

**기출**

-----시간

**실전개념**

-----시간

**EBS**

-----시간

**N제**

-----시간

**-----시간**

**선택**

-----%

**개념**

-----시간

**기출**

-----시간

**실전개념**

-----시간

**EBS**

-----시간

**N제**

-----시간

**파이널**

-----%

**모의고사**

-----시간

**파이널**

-----시간

**나만의 공부시간 배분하는 법**

1.나에게 남은 공부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한다. ex. 313.25 (약 313시간)

2.과목별로 배분한다. (예시. 수학1 25%, 수학2 30%, 선택 30% 모고+파이널 15%)

ex. 수학1은 그래도 잘 되어 있으니까 20%.나는 수학2랑 선택과목이 약하니까.. 수학2 30% 선택 35% 파이널은 15% 정도?

→ 수학1은 62시간, 수학2는 94시간, 선택은 110시간, 파이널 47시간

3.과목별 공부시간을 진도별로 배분한다.

→ 수학1 (62시간) 개념은 수학의 단권화로 10시간, 기출+실전개념 30시간, EBS 12시간, N제 12시간

★중요도★ 개념>>기출+실전개념>>EBS>N제

★주의★ 개념을 문제 풀면서 함께 하겠다는 마인드x

**부족한 시간  
전략 짜는법**



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걸 모르는 겁니다.  
지금 상태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 같나요?  
아니라면, 성공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.

# 김지석t 수강후기

수 학 1 등 급 , 가 장 빠 르 게

STEP. 0 노베

STEP. 0 노베

노베스피드

“가장 낮은  
눈높이에 맞춰서  
가장 빠르게 노베탈출”

그래프테크닉 기본편

“아무도 이렇게 가르쳐  
준적이 없었어요  
그래프 이제 안 무서워요.”

7일 완성

STEP.1

수학의 단권화



“3개월 만에 5→1등급  
치대 합격”

7일 완성

STEP. 2

수능한권



“EBS 수특 풀기 전에 필수!  
대표기출 1주일에 1과목씩 정리”

STEP. 3

그래프테크닉



“고난도 추론 문항  
이제 혼자 풀 수 있어요.”

6시간 완성

STEP. 3

도형의 필연성



“도형 문제 보자마자 어디에다  
보조선을 그을 지가 보여요.”

QR CODE

강의페이지



STEP. 4

고난도정신



“고난도 테마만 집중적으로  
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어요.”